

제1141호 2013.2.23~3.1

한일부 



주간 북한 동향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개황 | 대남동향 | 내부동향 | 대외동향
주요인물 동정 | 주간보도일지 | 금주의 약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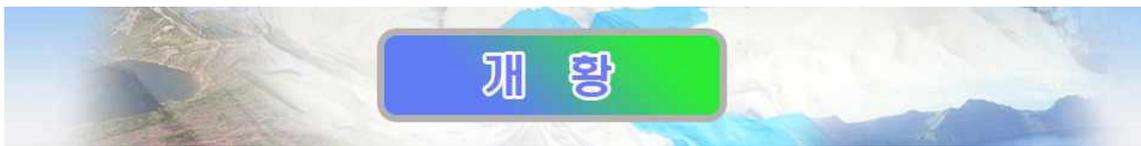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

Contents

제1141호 2013.2.23~3.1

I 개 황	1
II 대남동향	
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비난	2
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주요 인사에 대한 비난	3
III 내부동향	
‘김정은 군 관련 시찰’ 동향	4
‘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’ 개최	5
IV 대외동향	
‘김정은 농구경기 관람’ 동향	6
주요인물 동정	7
주간보도일지	16
 금주의 약사	24



개황

대남동향

키 리졸브·독수리 훈련 비난

- 北은 2월 23일 관문점대표부 대표(박림수)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'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 강행은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', '그 순간부터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이 될 것'이라고 위협 (2.23 중통)

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주요 인사에 대한 비난

- 北은 2월 26일 평방을 통해 '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21세기 을사오적'이라고 하며,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와 대북정책을 비난 (2.26 평방)

내부동향

'김정은 군 관련 시찰' 동향

- 김정은은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·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,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을 하였음.(2.23·2.26 중통)

'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' 개최

- 북한은 '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'를 개최하였음.(2.28 중통)

대외동향

'김정은 농구경기 관람' 동향

- 김정은은 북·미 농구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데 이어 前 NBA 선수단 일행과 담화를 나누었음.(3.1 중통)



키 리졸브·독수리 훈련 비난

개 요

- 北은 2월 23일 판문점대표부 대표(박림수) 명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'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 강행은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', '그 순간부터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이 될 것'이라고 위협 (223 중통)

주요내용

< 북 판문점대표부 대표 박림수,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 > (223 중통)

- 자주적 권리인 위성발사와 자위적 지하 핵실험을 걸고 새로운 제재를 모의하며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음.
- 그 연장선에서 키 리졸브·독수리 연습을 벌리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불구름을 획책하면서 사전통보 하는 요술을 부리고 있음.
-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음.
- 키 리졸브·독수리 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.



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주요 인사에 대한 비난

개요

- 北은 2월 26일 평방을 통해 ‘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21세기 을사오적’이라고 하며, 지난 정부의 주요 인사와 대북정책을 비난 (2.26 평방)

주요내용

< 가차없이 처형해야 할 21세기 을사오적 > (2.26 평방)

- 역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 이OO 정권이 역사무대에서 사라졌음. 이OO 역도와 그 줄개들인 OOO 등은 21세기 을사오적들임.
- 비핵개방3000을 내두고 6.15의 성과들을 모조리 말살하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으로 북남 관계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으로 몰아간 장본인임.
 -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사건, 동까모 사건 등 특대형 모략 및 도발사건들은 대결적 정체를 폭로해주고 있음.
- OOO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배타적 민족주의로 중상모독하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이니 진정성이니 하면서 민간급 내왕과 협력사업마저 차단하고 거덜냄.
- OOO는 유연성의 간판 밑에 체제 통일의 흉심을 품고 통일향아리놀음에 매달림으로써 자기의 알락한 대결본색을 드러냄.
- OOO는 그 누구의 붕괴론을 피터지게 제창하고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임계점이니 변화니 하면서 체제대결의 독기를 풍김.
 -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걸고들며 모든 조치를 취해서 북이 고통을 느낄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고 북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을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고아담.
 - 북남관계를 탕쳐놓고도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남북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느니 파렴치한 나발을 불어댐.
- OOO는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까지 응징해야 한다는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림.
-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며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역적죄를 지은 자들에게 추호의 자비도 있을 수 없음.



내부동향

‘김정은 군 관련 시찰’ 동향

개요

- 김정은은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·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을 하였음.(2.23·2.26 중통)

주요내용

□ ‘항공 및 반항공군’·‘제630대연합부대’ 훈련 지도(‘13.2.23 중통)

- 참가: 김정은·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김영춘·리영길·손철주·조경철·윤동현·리병철·최경성·림광일·강기섭·손청남·로홍세·윤정린·최부일·황병서·라청일·홍영칠 등
- 주요 내용
 - 비행사들은 도로비행장을 이용한 이착륙훈련을, 항공육전병들은 강하훈련을 하였음.
 - 현대전에 맞는 전법을 연구하고, 무장장비들을 현대화하는데 힘을 불어넣어야 함.

□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(‘13.2.26 중통)

- 참가: 김정은·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김영춘·리영길·손철주·림철성·조경철·윤동현·김영철·박정천·윤동희·김택구·박동학·림광일·최부일·오일정·김경옥·리재일·라청일·홍영칠 등
- 주요 내용
 - 김정은은 연평도의 적들이 무모한 포탄을 날렸다가 인민군 포병들이 퍼붓는 포탄에 얻어맞았다고 말했음.
 - 김정은은 새로 개발한 무장장비들을 살펴보았음.

□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(‘13.2.26 중통)

- 참가: 김정은·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김영춘·김정각·리영길·손철주·림철성·조경철·윤동현·김영철·박정천·윤동희·김택구·박동학·림광일·최부일·오일정·김경옥·리재일·라청일·홍영칠 등
- 주요 내용
 - 무대에서는 관현악·남성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루어졌음.



‘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’ 개최

개 요

- 북한은 ‘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’를 개최하였음.(2.28 중통)

주요내용

□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‘13.2.27, 평양
- 참가: 최영림·최태복·박도춘 등
- 보고: 최태복(당 중앙위원회 비서)

□ 주요 내용

- 회의에서는 김정일이 발표한 노작 ‘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’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들이 토의되었음.
- 김일성이 1973년 2월, ‘3대혁명소조운동’의 봉화를 지핀 것은 의의를 가지는 조치였음.
 - ‘3대혁명소조운동’이 김일성·김정일의 지도 아래 사상·기술·문화혁명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이 되었음.
- 토론에서는 우주정복자·핵무기 개발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경제의 주체화·현대화·정보화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해나가는 것들이 논의되었음.



‘김정은 농구경기 관람’ 동향

개 요

- 김정은은 북·미 농구팀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데 이어 前 NBA 선수단 일행과 담화를 나누었음.(3.1 중통)

주요내용

□ 개 요

- 일시 및 장소 : '13.2.28, 류경정주영체육관
- 참석: (북측) 김정은·리설주 등
(미국측) 데니스 로드맨(前 NBA 선수), 브레트 데니스 메이스터(美 농구팀 부회장), 제프레이 라이몬드 문도(美 농구팀 최고운영자) 등

□ 주요 내용

- 데니스 로드맨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북한 국민·김정은은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.
 - 이어 북·미 두 나라 사이의 체육교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음.
- 북한 올림픽위원회에서 마련한 만찬회가 열렸음.
 - 김정은은 체육교류 활성화가 북·미 양국 사람들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음.



주요인물동정

김정은(당 제1비서)

- 미상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공훈국가합창단공연관람 및 '감사' 전달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고경달(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)·정순원(황해남도수산관리국 산하 단위 지배인)·오순진(동림광산기계공장체육단 역기책임감독)에게 70회 생일상 전달(2.26,중통)
- 2.25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에 재선출된 '라울 카스트로 루쓰' 내각수상에게 축전(2.26,중통·중방)
- 미상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(2.27,중통)
- 2.28 北-美 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(류경정주영체육관) 관람, 美 NBA 前 선수 '데니스 로드맨' 등 일행과 만찬 및 담화(3.1,중통·중·평방)
- 2.27 '진달래 싸파리니'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에게 '결혼 축하 선물'을 지재룡 駐中 北 대사 통해 전달(2.28,중방·중통)

강기섭(민용항공총국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
곽범기(당 중앙위 비서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- 2.27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(인민문화궁전) 참석(2.28,중통)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림화'하기 위한 쉼기모임 참석(3.1,중방)

김격식(인민무력부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3. 1 '온 나라를 수립화·원림화하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설 데 대하여' 관철,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쉼기모임 참석(3.1,중통·평방)



김경옥(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김경희(당 중앙위 비서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김승두(교육위원장)
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립화'하기 위한 쉼기모임 참석(3.1,중방)

김양건(당 중앙위 비서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김영남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)

- 2.22~23 '3차 핵실험'에 공헌한 위훈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축하(2.23,중통)
- 2.23 '가이아나협동공화국선포' 4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2.23,중통·중방)
- 2.24 쿠웨이트 독립 52돌 즈음 同國 추장에게 축전(2.24,중통)
- 2.25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과학자·기술자·노동자·군인건설자·일꾼들에 대한 '국가표창' 수여식 참가(2.26,중통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- 2.26 키프로스공화국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(2.27,중통)
- 2.28 駐北 인도 대사 신임장 접수(2.28,중통·중방)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립화'하기 위한 쉼기모임 참석(3.1,중방)
- 3. 1 알제리 대통령 생일 즈음 축전(3.1,중통·평방)

김영일(당 중앙위 비서)

- 2.26 駐北 시리아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6,중통·중방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김영철(총참모부 정찰총국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

김영준(당 중앙위 부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김용진(내각 부총리)
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림화'하기 위한 쉼기모임 참석(3.1,중방)

김정각(국방위원회 위원)
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김정숙(대외문화연락위원장)

- 2.25 駐北 이란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5,중통·중방)

김창룡(국토환경보호상)
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림화'하기 위한 쉼기모임 참석(3.1,중방)

김택구(인민무력부 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김평해(당 중앙위 비서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- 2.27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(인민문화궁전) 참석(2.28,중통)

라정일(미상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

림철성(인민군 중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로홍세(인민군 중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
리퉁남(무역상)

- 2.25 駐北 이란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5, 중통·중방)
- 2.26 駐北 시리아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6, 중통·중방)

리병철(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
리설주(김정은 부인)

- 2.28 김정은, 北·美 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(류경정주영체육관) 관람시 동행(3.1, 중통·중·평방)

리영길(인민군 중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리영수(당 근로단체부장)

- 3. 1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폐막식(청춘거리 농구경기관) 참석(3.1, 중통·중방)

리영철(당 국제부 부부장)

- 2.25 노동당 대표단으로 러시아 黨 중앙위원장 '게. 쥬가노브'와 담화(2.26, 중통)
- 2.26 노동당 대표단으로 정의의 러시아 黨 지도자(에스.엠.미로노브)와 담화(2.27, 중통)



리재일(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리중무(체육상)

- 3. 1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폐막식(청춘거리 농구경기관) 참석(3.1, 중통·중방)

림광일(미상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문경덕(평양시당 책임비서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 중통)

박광철(駐 리투아니아 대사)

- 2.22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(2.28, 중방·중통)

박도춘(당 중앙위 비서)

- 미상 '3차 핵실험'에 공헌한 위훈자들의 숙소를 방문(2.23, 중통)
- 2.25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과학자·기술자·노동자·군인건설자·일꾼들에 대한 '국가표창' 수여식 참가(2.26, 중통)
- 2.25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을 위한 '생일축하연'(김정은 마련) 참석(고려호텔)(2.25, 중통)
- 2.25 '3차 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에게 보내는 '김정은 선물전달식'에서 선물전달사(2.26, 중통)
- 2.26 '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(양각도국제호텔) 참석(2.26, 중통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 중통)
- 2.27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(인민문화궁전) 참석(2.28, 중통)

박동학(인민군 소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

박림수(판문점대표부 대표)

- 2.23 '키 리졸브'훈련 등과 관련 駐韓美軍司令官에게 '전화통지문' 발송을 통해 비난 및 위협(2.23,중통·중·평방)

박정천(인민군 중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손철주(총정치국 부국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양형섭(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)

- 2.25 駐北 이란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5,중통·중방)
- 2.26 駐北 시리아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6,중통·중방)

오일정(당 민방위부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윤동현(인민무력부 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윤동희(인민군 소장)
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

윤정린(호위사령관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
장성택(국방위 부위원장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전용남(「청년동맹」 위원장)
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림화'하기 위한 꺾기모임 참석(3.1,중방)

정영수(노동상)

- 2.25 駐北 이란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5,중통·중방)

조경철(인민군 상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조연준(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)

- 2.25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과학자·기술자·노동자·군인건설자·일꾼들 숙소방문(2.25,중통·중방)
- 2.26 '핵실험' 공언 위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(양각도국제호텔) 참석(2.26,중통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차희림(평양시 인민위원장)

- 3. 1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의 '수립화·원림화'하기 위한 꺾기모임 참석(3.1,중방)

최경성(인민군 상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


최룡해(총정치국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
최부일(인민군 대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중통·중·평방)

최영림(내각 총리)

- 2.22~23 '3차 핵실험'에 공헌한 위훈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축하(2.23,중통)
- 2.24 쿠웨이트 독립 52돌 즈음 同國 수상에게 축전(2.24,중통)
- 2.26 '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(양각도국제호텔) 참석(2.26,중통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- 2.27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(인민문화궁전) 참석(2.28,중통)

최장식(보건상)

- 2.26 駐北 시리아 대사 주최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참석(2.26,중통·중방)

최태복(최고인민회의 의장)

- 2.25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과학자·기술자·노동자·군인건설자-일꾼들 숙소방문(2.25,중통·중방)
- 2.26 '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(양각도국제호텔)에서 연설(2.26,중통)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중통)
- 2.27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(인민문화궁전) 참석(2.28,중통)

태중수(함경남도당 책임비서)

- 2.25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 마광직장 개건 준공식 참석(2.25,중통)



현영철(인민군 총참모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현철해(인민무력부 제1부부장)

- 3. 1 '온 나라를 수렴화·원림화하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설 데 대하여' 관철,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쫓기모임 참석(3.1, 중통·평방)

홍승무(당 중앙위 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시 수행(2.27, 중통)

홍영철(미상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- 미상 김정은,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시 수행(2.26, 중통·중·평방)

황병서(당 조직지도부 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시 수행(2.23, 중통·중·평방)



주간일지

대남동향

■ 2.23(토)

- 韓美 연합대잠수함훈련 진행 관련 ‘우리(北)에 대한 선제공격을 피하고 그 체계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도발소동’이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핵전쟁을 몰아오는 무모한 침략적 기도)
- 【중통 논평】李 대통령의 ‘퇴임연설’ 관련 “과렵치하고 뻔뻔스러운 사기극, 광대극”이라며 ‘동족대결정책을 마지막까지 정당화하며, 민족 앞에 저지른 특대형범죄들을 덮어버리고 저승으로의 직행길을 모면해 보려는 최후발악’이라고 비난(중통/세상밖에 내버려야 할 역사의 퇴물)

■ 2.24(일)

- 李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‘집권 5년간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심화시키고 조국통일위업을 가로막은 반민족적 죄악을 반드시 결산해야 할 것’이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/추악한 사대매국노의 반민족적 범죄는 천백배로 결산될 것이다)

■ 2.25(월)

- 韓美 ‘키 리졸브·독수리’ 합동연습(3.11-21·3.1-4.30) 계획 비난 및 ‘北 「관문짐」 대표부 대표 통지문(2.23, 그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)’ 재차 강조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핵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도발)
- 李〇〇前 대통령의 집권 5년간 對北정책(비핵, 개방, 3000 추구) 비난 및 ‘現 남북관계 사태는 역적패당의 동족대결 책동의 필연적 산물’이라고 책임 전가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한 반통일 죄악)
 - * 李대통령 재임時 ‘對美·日 관계 강화’에 대해 “사대매국행위, 특등매국노”라고 원색적 비난(평방/특등매국노의 죄악 1회 -민족의 존엄을 더럽힌 특등주구)
 - * 【중통 논평】천영우 청와대 前 수석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(北이 약자라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 등)은 ‘李〇〇역도가 퇴임연설에서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 했던 꼴과 다를 바 없는 히스테리적 추태’라고 비난(중통)

■ 2.26(화)

-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’ 등 거론 ‘韓美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때문에 수십 년간 민족이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‘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 온 겨레가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(중통·노동신문/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과제)
 - *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’ 등 관련 ‘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이어놓으려 하고 있다며 ‘침략전쟁연습, 핵전쟁연습’이라고 비난(평방/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도발행위,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)



-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對北 발언(더는 버틸 수 없는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등) 관련 “북남대결에 미친자의 발작증”이라며 ‘멸망의 운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들의 최후발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달을 보고 짓어대는 개소리)

■ 2.27(수)

- 韓美 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 실시 관련 ‘끝끝내 도발을 걸어온다면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위협 지속(중통·노동신문/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 보낼 것이다)
- * 「중통」 논평을 통해서도 키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‘北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정치군사적 도발행위’라고 비난(중통)
- ‘李 前 대통령 집권기간 외세와 야합해 벌여놓은 북침전쟁연습이 한반도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킨 근본요인이었다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/북침화약내에 중독된 극악한 호전광)

■ 2.28(목)

- 韓美의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이며 복사판”이라며 ‘現 한반도 사태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 책임이라고 호도(평방/팀스피리트를 재현한 북침 핵시험전쟁)
- 국군 6사단의 ‘아외기동훈련 예정(3.4~8)’, 연합뉴스 인용 비난(중통·중방)

■ 3.1(금)

- 3·1절 94주년을 맞으며 ‘반외세지주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,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북과 남, 해외의 3자연대와 연합을 공고히 하고 자주통일운동을 전면적 판도에서 확대 강화해 나가자고 선동(중통·노동신문/반외세, 통일애국의 기치높이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자)
-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’ 관련 ‘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, 노골적 선전포고라며 ‘새 전쟁의 불집이 터지는 경우 반드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’이라고 재차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핵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무모한 군사적 광란)
- *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’ 관련 ‘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한다면 침략과 도발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’이라고 지속 비난(평방/북침전쟁에 불을 달기 위한 위험한 군사적 책동, 전쟁의 불씨를 날리는 분별없는 모험)

내부동향

■ 2.23(토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항공 및 반항공군·제630대연합부대 비행훈련과 항공육전병 강하훈련 지도(중통·중방·평방)
- 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김영춘·리영길·손철주·조경철·윤동현·리병철·최경성·림광일·강기섭·손창남·로흥세·윤정린·최부일·황병서·리청일·홍영철 등 동행
- 김정은은 이날 저녁 훈련에 참가한 부대 장병들을 평양에 불러 기념촬영



* 김정은, '전군당강습지도일꾼회의' 참가자들과 기념촬영(인민무력부 김일성-김정일父子 동상 앞)(2.22, 중방·평방·중통)

- 최룡해·리병삼·김경옥·황병서·손철주·염철성 등 참가

● 北 국가책임일꾼들(김영남·최영림), 2.22 '3차 핵실험'에 공헌한 위훈자들의 숙소를 방문하여 축하(중통)

- 또한 이에 앞서 박도춘(黨비서), 黨 중앙위 일꾼들도 숙소 방문

* 北, '3차 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 1만 1천592명에게 표창(중통·중방)

-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을 발표(2.21)하여 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1급(100명), 김정일훈장(17명), 김정일상(19명), 김정일청년영예상(50명) 수여

- 이밖에 인민과학자칭호(12명), 공훈과학자칭호(24명), 공훈칭호(20명), 국기훈장 제1급(300명), 노력훈장(950명), 국기훈장 제2급(3,000명),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(300명), 국기훈장 제3급(3,000명), 전사의 영예훈장 제2급(800명), 공로메달(2,000명), 군공메달(1,000명)이 수여

* '3차 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, 2.23 인민무력부에 위치한 김일성父子 동상 참배 및 혁명사적관·인민야외빙상장·롤러스케이팅장 참관(중통·중방·평방)

●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,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참관(중통·중방)

● 駐北 러시아대사관 성원들, 2.23 '조국수호의 날' 즈음 해방탑과 소련군열사들의 묘에 헌화(중통·중방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
□ 김영남, 2.23 '가이아나협동공화국선포' 4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
□ 재일본조선인대표단(단장: 배진구 총련중앙상임위 부의장), 2.23 귀국(중통·평방)

□ 재미동포전국연합회대표단(김현환 사무총장), 2.23 귀국(중통·평방)

□ 박용하(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회장), 2.23 귀국(중통)

■ 2.24(일)

● 핵실험 성공 공헌자들, 2.24 국가선물관과 평양민속공원 참관(중통)

●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대회 참가자들, 2.24 평양 도착(중앙TV)

● 각지 근로자들,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·약밥을 먹고 달맞이를 하며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냄(중통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
□ 김영남과 최영림, 2.24 쿠웨이트 독립 52돌 즈음 同國 추장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(중통)

■ 2.25(월)

● '3차 핵실험' 등은 "黨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결실"이라며 "우리의 힘과 기술로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"고 독려(중통·노동신문 시설/핵과 위성을 가진 강국의 기상으로 최첨단돌파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)

● 검덕광업연합기업소(함경남도) 제3선광장 미광직장 개건 준공식, 2.25 태종수(咸南道黨 책임비서) 등 참가 下 진행(중통)

●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, 2.25 만경대 방문 및 대성산혁명열사능·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·3대혁명전시관 참관(중통·평방)



- '216과학기술상(개인상·과제상)' 제정(2003년) 이후 지난 10년간(2004년부터 시상) "640여명의 수상자(개인상 12명)" 배출 선전(노동신문)
- 김광필(국토환경보호성 국토환경보호교류 사장) 등, '임농복합경영활동' 성과(2004년 수안군 시범대상 지정, 黃北道 100여개 산리농민들 조직 등) 선전(중통)
- 駐北 이란 대사, 2.25 양형섭(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)·리룡남·정영수(무역상·노동상)·김정숙(대외문화 연락 위원장) 등 초대下 김정일 생일 즈음 연회 개최(중통·중방)

..... 【주요인물 동정】

□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, 2.25 평양 출발(중통·중방)

■ 2.26(화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포병화력타격훈련 지도(중통·중방·평방)
 - 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김영춘·리영길·손철주·렴철성·조경철·윤동현·김영철·박정천·윤동희·김택구·박동학·림광일·최부일·오일정·김경옥·리재일·라청일·홍영철 등 동행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공연 '조선은 결심하면 한다' 관람 및 '감사 전달(중통·중방·평방)
 - 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김영춘·김정각·리영길·손철주·렴철성·조경철·윤동현·김영철·박정천·윤동희·김택구·박동학·림광일·최부일·오일정·김경옥·리재일·라청일·홍영철 등 동행 관람
-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과학자·기술자·노동자·군인건설자-일꾼들에 대한 '국가표창(영웅칭호와 금별 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, 김정일훈장·김정일상)' 수여식, 2.25 김영남·박도춘 등 참가下 진행(중통)
 - 김일성 시계표창: 59명, 김정일 시계표창: 19명, 김정은 표창장(黨 제1비서): 74명, 김정은 표창장(최고사령관): 22명 수여
 - * 최태복(黨 비서)·조연준(黨 제1부부장), 2.25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과학자·기술자·노동자·군인건설자-일꾼들 숙소방문(2.25, 중통·중방)
 - *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을 위한 '생일축하연'(김정은 마련), 5.25 박도춘(黨 비서) 등 참가下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(2.25, 중통)
 - * '3차 핵실험에 공헌한' 국방과학부문 과학자 등, 2.25 인민군 무장장비관 참관(2.25, 중방·중통)
-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공사(2011.7.6, 착공) 준공식, 2.25 진행(중통)
 - 조선의 풍부한 연료에 의거하여 압연강재를 광광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금속공업을 주체화, 현대화하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음.
 - * '김정일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' 김혁청년돌격대·보수사업소 일꾼들과 보장단위·연관단위(내각·성·중앙기관 등) 등의 지난 1년4개월간 "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" 노고 치해(중통/주체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자립경제의 본때)
- 김정은 黨 제1비서, 고경달(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)·정순원(황해남도수산물리국 산하 단위 지배인)·오순진(동림광산기계공장체육단 역기책임감독)에게 70회 생일상 전달(중통)
- '3차 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에게 보내는 '김정은 선물전달식', 2.26 박도춘(黨비서, 선물전달사) 등 참가下 진행(중통)
 - * '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을 축하하는 연회, 2.26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진행(중통)
 - 최영림, 최태복(연설), 박도춘, 조연준 등 참가



- * '핵실험' 공헌 위훈자들, 2.26 통일거리운동센터 참관(중통)
-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 참가자들, 2.26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父子 참배(중통)
- 駐北 시리아 대사, 2.26 김정일 생일 즈음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(중통·중방)
 - 양형섭, 김영일, 리룡남(무역상), 최창식(보건상) 등 초대
- 【주요인물 동정】
- 美國 前 NBA선수 '데니스 로드맨', 2.26 평양 도착(중통)

■ 2.27(수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제3차 핵실험 성공 위훈자들과 사진 촬영(중통)
 - 김영남, 최영림, 최룡해, 장성택, 김경희, 최태복, 박도춘, 김영춘, 김양건, 김영일, 김평해, 곽범기, 문경덕, 조연준, 홍승무 등 참가
- * 제3차 지하핵실험 성공 위훈자들, 2.27 평양체류일정을 마치고 출발(중통)
-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, 2.19 모범적 단위들에 3중3대혁명붉은기·2중3대혁명붉은기·3대혁명붉은기 수여 '정령' 발표(중통)
 - * 모범적 학교들에 2중영예의붉은기·영예의붉은기 수여 정령도 발표(중통)
- 前 NBA 선수 '데니스 로드맨' 참석下 北·美 농구선수들의 공동훈련, 2.27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(중통)
- 올해 北을 찾는 유럽지역(독일, 영국, 네덜란드 등)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(중통)
 - 비행기관광예약 인원수가 지난해의 2배, 외국인 편의를 위해 국제열차운행이 개선되고 비정기 국제항로 활발히 운영 예정, 미니골프·체육관광 새로 운영 등
- 【주요인물 동정】
- 김영남, 2.26 키프로스공화국 대통령에게 당선 축전(중통)

■ 2.28(목)

- 전국 3대혁명소조원 열성자회의, 2.27 최영림·최태복·박도춘·김평해·곽범기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(중통)
 - 김정은 노작 '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' 전달 및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대책적 문제 토의
- 김정일 저작(혁명가극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) 발표(7.3.1) 40돌 즈음 "지난 40년간 피바다식 가극이 많이 창작되고 5대혁명가극은 7,000여회 공연 진행" 선전(중통)
 - 혁명가극 '피바다'의 1,600회 공연과 혁명가극 '꽃피는 처녀'의 1,500회 공연 및 러시아·쿠바·이탈리아·일본 등 40여개 나라에서 수백회 공연
 - * 김정일 저작(사회주의에 대한 헐방은 허용될 수 없다) 발표(9.3.1)와 관련해서도 '김정일의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적전진에서 지침으로 되는 저작들' 선전 칭송(중통)
- 전국 각지에 파견된 '전국 3대혁명소조원'들의 "지난 10년간 2만4천여 건의 기술혁신 성과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" 치하(중방·노동신문)
- 고려약기술중심에서 '콩에서 레시틴(심장혈관계통 질병 예방·치료 효과) 추출 성공' 선전(중통)



- 김영남, 228 駐北 인도 대사 신임장 접수(중통·중방)

■ 3.1(금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228 리설주와 함께 北-美 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(류경정주영체육관) 관람 및 美 NBA 前 선수 ‘데니스 로드맨’ 등 일행과 담화(중통·중방·평방)
 - 김정은은 이날 저녁 北 올림픽촌에서 美 NBA 前 선수와 일행을 위해 마련한 만찬회에 참석, 데니스 로드맨 일행과 담화
 -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단 성원들, 외국손님 등 경기 관람
 - * 美 NBA 前 선수 ‘데니스 로드맨’ 일행, 228 금수산태양궁전 방문(228,중통·중방)
 - 연안군(황해남도) 해남협동농장 청년분조 등 10개 단위에 ‘3중모범청년분조작업반 칭호’ 수여식, 228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(중방)
 - 【「식수절」(32) 관련 동향】
 - * 조선인민군 장병들,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서 ‘온 나라를 수림화·원림화하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설 데 대하여’ 관철 궤기모임 진행(중통·평방)
 - 김격식(인민무력부장, 보고), 현철해(인민무력부 제1부부장) 등 참가
 - *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, 문수봉혁명사적지와 중앙식물원에서 ‘수림화·원림화’하기 위한 궤기모임 각각 진행(중방)
 - 김영남, 곽범기, 김영진(내각부총리), 김승두(교육위원장), 김창룡(국토환경보호상), 차희림(평양시 인민위원장), 전용남(청년동맹 위원장, 보고) 등 참가
 - * ‘농근맹원들과 여맹원들’, ‘수림화·원림화’ 위한 궤기모임 各各 진행(중통)
 - 또한 각 도, 시, 군들에서도 일꾼들과 근로자들, 청소년학생들의 궤기모임들 진행
 -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(25, 개막), 31 리영수(黨부장)·리종무(체육상) 등 참가 下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폐막식 진행(중통·중방)
 - 美 前 NBA선수 ‘데니스 로드맨’과 일행, 31 능라급등어관과 주체사상탑 개선문 참관(중통·평방)
 - * ‘데니스 로드맨’과 일행, 31 평양 출발(중통·평방)
 - 北, 지난 10년간 3대혁명소조원들이 ‘2만4,000여건의 기술혁신성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했다고 선전(중방)
- 【주요인물 동정】
- 김영남, 31 알제리 대통령 생일 즈음 축전(중통·평방)

대외동향

■ 2.23(토)

- 박림수(北관문점대표부 대표), 223 ‘키 리졸브’훈련 등과 관련 駐韓美軍司令官에게 ‘전화통지문’ 발송을 통해 비난 및 위협(중통·중방·평방)



- 당신측이 무모한 키 리졸브,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것으로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들의 시간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임.
- * **【중통 논평】** ‘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우리(北)로 하여금 초강경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다’고 핵실험의 정당성 주장 및 책임을 전가하며 “조미핵대결전은 결코 유희로 될 수 없다”고 위협(중통/대조선적대시정책의 필연적 귀결)

■ 2.24(일)

- ‘위성발사와 핵실험은 北의 합법적 권리, 정당방위 조치’라며 ‘미국과 추종세력이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무자비한 보복대응을 면치 못할 것’이라고 위협 지속(중통·노동신문/당당한 자주적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)
- * ‘제3차 핵실험은 미국의 對北적대정책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마음놓고 벌일 수 없는 엄혹한 정세하에서 내린 중대결심’이라며 對美책임 전가(중통·민주조선/미국을 조선반도사태 악화의 장본인으로 낙인)
- 北 김금옥 선수, 224 제14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(홍콩)에서 금메달 획득(중통)

■ 2.25(월)

- 미국의 ‘韓美 전시작전준비훈련’ 등과 ‘키 리졸브·독수리’ 합동연습계획 등 관련 ‘美 호전광들은 당당한 핵보유국인 北을 건드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 것인가 하는 것쯤은 생각해야 할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)
- * 北, ‘3차 핵실험’을 “자위적 조치의 일환”이라고 對美겨냥 지속 주장 및 “오늘날 핵무기는 결코 미제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·나라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실질적 대응조치)

■ 2.26(화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225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에 再선출된 ‘리올 카스트로 루쓰’ 내각수상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- 北 ‘광명성-3호 2호기’를 인공위성으로 등록하는 문건을 유엔에 제출(중통)
 - 최근 유엔우주사무소는 광명성-3호 2호기 등록과 관련 유엔공식문건(ST/SQ/SER.E/662)을 작성하여 유엔우주사무소웹사이트 위성등록부와 유엔전자문서고웹사이트에 각각 게재함으로써 위성등록사업 완결
- 北 노동당대표단(단장: 리영철 黨 부부장), 225 러시아 黨 중앙위원장 ‘게. 주가노브’와 담화(중통)
- **【중통 논평】** ‘日, 조총련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외 결정’ 관련 ‘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정치적 압력책동의 목적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총련을 말살하려는 데 있다’며 ‘이번 적대행위는 인권유린, 주권침해행위’라고 비난(중통/전범국 일본의 비열하고 유치한 민족차별행위)

■ 2.27(수)

- 日 아베수상의 위안부범죄 부인 발언을 파렴치한 망동으로 비난하며 ‘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갈 길은 오직 과거범죄에 대한 시죄와 배상에 있다고 주장(중통·노동신문/언제까지 생떼를 쓰겠는가)



- 일제의 강화도조약 날조(1876.2.27) 137돌을 맞으며 ‘선군의 위력으로 일본의 과거범죄를 총결산하고 모든 죄악의 대가를 받아낼 것’이라고 비난(중통/일제의 조선침략 역사는 절대로 덮어버릴 수 없다)
- 정의의 러시아黨 지도자(에스 엠 미로노브), 2.26 北 노동당 대표단(리영철 黨 부부장)과 담화(중통)
 - * 러시아 자유민주당 국가회의 제1부책임자(오브산니꼬브), 2.26 北 노동당 대표단과 담화(중통)

■ 2.28(목)

- 김정은, 2.27 ‘진달래 싸파리니’ 진달래아동기금 회장에게 ‘결혼 축하 선물’을 지재룡 駐中 北 대사 통해 전달(중방·중통)
- 「6.15선언실천 북측측 대변인, 2.28 일본 당국의 ‘北 핵실험’ 등에 대한 「총련」·재일동포들 제재·탄압 책동 규탄 배경과 과거청산을 위한 “해내의 온 겨레의 전민족적 투쟁” 호소 담화 발표(중통·중방)
 - * 일본 정부의 “민족배타주의 책동(총련·재일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과 동화책동의 양면전술 탄압)은 죄악을 덧씌우는 행위”라고 분개 및 과거청산 촉구(중통/일본반동들의 뿌리깊은 민족배타주의와 야만적 기질)
- 【중통 논평】 미국의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연습’ 관련 ‘우리(北)가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미국은 그것이 초래할 후과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’이라며 ‘北 3차 핵실험은 1차적 대응조치불과 지속 강조 위협(중통/조선에 대한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)
 - * 위와 관련 박호명·최수길·한남수(北 군관) 등, ‘만단의 결전준비태세 완료’ 등 ‘對美겨냥 대결전 의지’ 표출(중통·중방·평방)
 - * ‘미국은 우리(北)의 위성발사권리를 존중하여 완화와 안정의 국면을 열겠는가 아니면 對北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, 최후 대결을 하겠는가 하는 분기점에 서있다’고 주장(중통·노동신문·중방/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)
- ‘세계적인 우주개발 본격화’ 및 주목되는 것은 ‘△세계 우주개발의 독점체제 와해, △우주의 상업화, △우주군사화’라고 주장과 ‘우주의 평화적 이용’ 강조(중방·노동신문/세계적인 우주개발경쟁과 주목되는 동향)
- 박광철 駐리투아니아 北 대사, 2.22 駐在國 대통령에게 신임장 전달(중방·중통)

■ 3.1(금)

-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南 3.1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 및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, 3.1인민봉기 94돌 관련 남북공동호소문 발표(중통·평방)
 -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일운동을 과감히 벌려나갈 것과 반일투쟁을 위한 공동보조로 군국주의 부활을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을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호소
- 【중통 논평】 3·1절 94주년을 맞으며 ‘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개편움직임과 평화헌법개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, 독도강탈책동 등’ 거론 ‘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국주의재침책동에 계속 매달릴 경우 무지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’이라고 강조(중통/일본은 힘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)
- ‘미국과 추종세력들이 광명성-3호 2호기 발사와 핵실험을 문제시하며 지주권을 침해하려 들고 있으나 그러한 책동은 더 강도 높은 혁명적 공세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양보와 후퇴가 있을 수 없다’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조강경대응은 선군조선의 전통적인 투쟁방식)



금주(2.23~3.1)의 略史

- 02.23 : 제3차 미북고위급회담(23~24, 베이징)
- 02.24 : 범민련 해외본부, 베를린에서 도쿄로 이전('92년)
- 02.25 : 김일성, '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' 발표('64년)
※ 노동당 중앙위 제4기 8차 전원회의('64.2.25~27)에서 발표
- 02.25 : 오진우 인민무력부장 사망('95년)
- 02.25 : 제2차 6자회담('04.2.25~28, 북경)
- 02.26 :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 서울평양 교환 방문('01년)
- 02.27 :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(일본)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('91년, 판문점)
※ 남북 탁구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제반사항 완전 합의
- 02.27 :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사망('97년)
- 02.28 :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, 북한 요구로 판문점 철수('95년)
- 03.01 : 반일 31 인민봉기 기념일
- 03.01 : 식량배급 실시('46년)
- 03.01 : 독일과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('01년)